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Friday, Mar. 12th, 1926.

THE AMERICAN PRESS By Don C. Seitz in The Outlook.

clash at Concord and Lexington the press has been acclaimed, largely in its own columns, as the Palladium of Our Liberties. Before it came into being the statue of Pallas Athene, erected in public places, was considered the special guardian of these precious entities. They were wholly taken over when the new Constitution guaranteed the freedom of the printed word by the able editors, to whose credit it must be said that most of them were faithful to their trust. That they were bitter, partisan, and unfair can be readily admitted. But, like the watch-dog, they had an honest bark and did not sleep on duty-

It may be stated, however, that a wellfed watch-dog is less apt to be vigilant than one with an unsatisfied appetite, and profound observation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is rule applies to editors. The old vigilantes were not cverfat. Their occupation was hazardcus, their support small, and their friends few. Fighting party issues with savage zeal, they were only too frequently not supported by the party. Yet each stood by his colors and grew lean in purse and person for the cause.

面佳淵 四里

婦人川の公國際無産

For the century and a half since the

春川郡春川西春川西春川郡春川西

三四名い 正法会學出

関ット科シ

婦が投水

0

宣踢

변소에서 는계약금이십 화로도부러빗고향수증을교부 아주었는데지금에이므리화로 나는면소에서 오백오십원이란 도 고삿스니 자초계약금 이십원 다 하다가 리명하기 등지한 요구 하라가 리명하기 등지한 요구 하늘하얏는데 현장에 모히면 사람이는구를 물론하고그녀 사람이는구를 물론하고그녀 가라면수

數次法辱

巾民大會

지정기도 포원군소홀면 초가말리 (抱川郡蘇陀面初加八里)탈십오 반디 리길준(李吉俊)은 시내필 운동(弼雲洞) 일백삼십구번디 에 있는 그의쉬 문영순(文策順) (三)을상대로 종도서에 설우의 을 케출하였다는데 원래리길준 으문영순과 다섯해원부리 필요 아무영소과 다섯해원부리 필요 안라비되는 문항준(文學度)이 환자가 영덕한범죄로 인하여

선의주진사명(新築州異砂町)질명목 주의주진사명(新築州異砂町)질명목 주의주인사명(新築州異砂町)질

女子路博團

口女暴行

함부로막따라고

屍體發見

무상한(阿所長谷川茂三郎)이라는일인상명에 청인하여 청인하여 천원이라 한국 군 등이 청구원의안해에게 발견 학교 문장한 학교 군 등에 첫겨서 도 되으라고 나는 것을 모라고하며 떠들고 다니는 것을 무한지하며 떠들고 다니는 것을 다 나는 것을 받던 그 하다 된 경찰서원이 발견한것 이라

解職當計工

郡守言爭

仁川大火

マウナヒ男便引が 斷指한李信實女史

世國 (延禧本集生班日會 시외 명회 전 (延禧 近九會)에서 명리인비통 (延禧 近九會)에서 명리인비통 (延禧 近九會)에서 명리인비통 (延禧 近九會)에서 무례 단혜인비통 (조절 연호 인으로 이용지부터 종도 중앙청년회관에서 원고 여러가 이원으로 이용자과 열차산맥오 기자 미있는 음악과 열차산맥오 이용자과 열차산맥오 이용자과 열차산맥오 이용 단천 이 관리 구선(高句麗)시 대의 연조 (高句麗)이 관리 구산막으로 (思過達)이 관리 구산막으로 (思過達)이 관리 구산막으로 (思過達)이 관리 구산막으로 (문過達)이 관리 구산막으로 (문)

四面住民司苦痛

자고 (成附新術駐在所)고등灣 자고 김시흥(金時期)순사는 본 연상보주민(上班珠里)바면으로 출장하였다가 지난철일 도착으 는 길가에서 나흔지약하루가방 되는 아이를 돌멩이에한지속원 것을발견한결과 범인을 도착충 各團體消息

文藝誌流星 의원에 위치하다 다소간이라도 변화한 조선모단의 공헌을 하겠다는의 사로 조직된 류성회(滋星會)에 서로 조직된 류성회(滋星會)에 서로 조직된 류성(滋星)을미구에 함보하라라라는데검물(檢閱)은지 난오일부로마칭(음이로족시인쇄)

고보트평남장쉬군(江两郡)에잇 는 조선부연린교교통정체란장(朝 관하야는소관 항상이 시주야 함 고 생사가분명치통화 개하의 구출키에 로덜하든바 실일아출 대다성을발견하얏다더라

의에도여죄가잇는듯하다 시험중만 취료를 방문하

校牛 이 逃走 부부자용놀하고 부부자용놀하고 달아나베린안해 무規표)삼십칠번디 의희롱 교투規표)삼십칠번디 의희롱 교투規표)삼십칠번디 의희롱 는 보물사일방증에 집안사물당 기가 돈으십권으로 지각하나되었다는데 이커그 바려무고 형이가 돈으십권으로 지갑에너히 가 돈으십권으로 지갑에너히 자꾸는 바고보육 갑작이 업거짓을 지갑에너히 당하지 있었다는데 평소에도 청울합해오토증 이를 비관하다고(송화)

褓兒平工

로 원과종도서에서는 김모와급 선을 불리다가 성유하였스나급 정보 시도 김모와살겠다고하며 성유 플로지한 등으로 김모는 그대로 기보는 (檢束能分)을하였다더라 기보는 (檢束能分)을하였다더라 기보는 (檢束能分)을하였다더라 한 등이다니 이 다음 한 등이 한 등이 원이 의를 한 등이 원이 있는데 보기되아 무기 만서 보기되아 무기 무기 만서 보기되아 무기 만서 인바마 중이 우리 대자 기를 짓고 오 함하 한 등 된 권 경찰 선이 이 전 기 가를 짓고 오 함하 한 등 된 권 경찰 선이 이 신체 가량되아 보이 이 라고 (현원) 가당 대로 수 있는데 소해는 약 오십원 가량 다가 보건하고 (한 우십원 가량 되아 보이 이라고 (현원)

れないない 神の となる かられない ないかい ないかい ない はい に 不 平

牛市移轉으로

에서 심분정에 해주(海州) 남행 명사 번디 친구현정미소(南幸町에서 분이나서 일대소등을하는 사산입사장에 진화되었다는데원 이인은 그근처에 서울을 어렸아이는 그리처에 서울을 어렸아이는 그리처에 서울을 어렸아야 되었다. 海州火災 不过智节

埋没된工夫

◇新興少年會創立 「지문 소년 회」의 위원이 영론 리창하(李昌 夏) 미청룡(孟成勝) 있의 봉간부 모만호공도가 이모바병은(林東 고 이명을신흥소년회(新興少年) 라 보험으로 등지를모아서 하명을신흥소년회(新興少年) 라 청하기로하고 불일간구창립 잇스리라